

여름방학 학생 문화체험학교 큰 호응

포천문화원, 역사와 문화의식 제고 기회



포천문화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여름방학을 이용한 문화체험학교를 관내 11개 중학교 7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여름방학을 이용한 문화체험학교를 관내 11개 중학교 7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 큰 성과를 거양했다.

17일 유림회관에서 가진 입교식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이번 문화체험학교를 통해 포천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자랑스러운 고장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첫날 입교식이

어 향토문화전반에 관한 특강 및 시청각교육, 스피치토론 지도사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 갖기, 전통예절, 해방60년과 을사조약 100주년에 바라보는 근대사 이야기, 문화의식 제고 방안 등 지역의 역사와 인물, 예절 등 다양한 강좌를 개최했다.

둘째날에는 충목단, 화산서원, 고인돌 등 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유산 등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발전 및 역사의 재조명과 자긍심 고취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소감문을 받아 시상할 계획이며,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문화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형극으로 자원봉사 실천

사람바라기 자원봉사단(단장 조선녀, 이하 사람바라기)은 지난 18일 내촌면 포천실버타운을 방문해 인형극을 공연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노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봉사활동은 사람바라기 회원 9명이 참여해 '가는 세월 오는 백발'이란 인형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3명의 봉사자의 나레이션과 나머지 인원은 탈을채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실천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현감리교회(김홍규 목사)의 '꿈이영그는 문고'의 중학생교육을 갔던 것이 인연이 돼 김 목사의 권유로 실시하게 됐다.

가는 세월 오는 백발은 경로잔치에서 공연되는 노인 위문 인형극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삶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녀 단장은 "복지시설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계신 노인들을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며 "인형극 공연을 계기로 노력봉사뿐만 아니라 각종공연을 통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본지 학생명예기자단 제2차 기자교육

취재방법 기사작성법 등 이론과 실습 병행

본지 학생명예기자단 2005년 제2차 기자교육이 지난 1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은 제1부 개회식에 이어 제2부 기자교육으로 ▶학생명예기자의 역할 ▶신문의 탄생과 역사 ▶기사작성 실습 ▶교육평가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학생명예기자의 역할'이라는 교육에서는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의 역할, 기사가 될 만한 소재, 기사작성법, 취재하는 방법, 기사의 종류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신문의 탄생과 역사'란 교육시간은 세계 최초의 신문, 중세시대 신문, 근대신문 등 세계의 신문역사와 15세기 무렵, 개화기 신문, 일제치하의 신문, 미군정시대 신문, 자유당·민주당 시대의 신문, 군부독재·신군부 시대의 신문, 민주화 이후의 신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또한 기사작성 실습은 '보편청소년'이라는 주제로 '평소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했는데 오늘 교육을 받고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신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본지 학생명예기자단 2005년 제2차 기자교육이 지난 1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12년 해의 선진문화 비교연수 '경기 도미술관 건립' '자유주제' 등의 주제로 학생명예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교육에 참석한 학생명예기자

환경일기

"지구가 아파요"



조 현 지 학생명예기자 내춘초 3년

요즘 우리의 지구는 많이 아파하고 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만 편하자고 마구마구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개울물도 1급수~2급수 물이 80%였는데 지금은 1급수~2급수 물이 40%도 안된다고 한다.

옛날에는 목이 마르면 개울에서 마셔도 되었는데 지금은 물이 부족해서 막 사먹는다.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에는 공기를 사먹어야 하고, 비가오면 강철우산을, 평소에는 방독면과 효과가 같은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와서 지구

를 지키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공기가 심하게 나빠지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몇 가지 있을 것 같다. 이번지활을 잘하고 공책을 찢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잘 해야 하고 쓸데없는 쓰레기는 태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은데 그중 단 한가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의 아픔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이라고 지구의 병을 심하게는 만들지 말자!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36)

딸낭구

우리들은 나무를 하여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고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이 나무를 지고 올 때쯤이면, 화롯불에 말린 호박 고자리를 넣은 된장찌개를 얹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허풍을 떨며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이고 무거워라!"

할머니는 손자들이 예쁘고 안 쓰러워 버섯발로 뛰어 나오십니다.

"배고프지? 할미가 니덜 올 때 기다려 참기름에다 밥 비벼 놔다. 화롯불이 세서 노릇노릇 누룽지도 맛있게 겠다."

할머니 댁에 나무를 해다 드리고 얻어먹는 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이사 나온 큰어머니 댁은 장려소를 기르기 위하

여 외양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 필요 없는 외양간을 큰어머니 댁으로 옮기기로 하였지요. 동네에서는 스무 명 가량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어여차, 어여차, 어가, 어가." 큰아버지께서 선소리를 먹으면 젊은 사내들은 후렴으로 따라 응수하며 외양간을 뜯지도 않고 나릅니다.

"어가~ 어가, 어기여차~ 어가. 발맞추고~ 어가. 발을 굴러~ 어가. 묵달미를 옮겨주고~ 어가. 쇠뚜름을~ 어가. 하여보자~ 어가. 감투바위~ 어가. 우리 보고~ 어가. 국망봉이~ 어가. 굽어본다~ 어가. 마산번대~ 어가. 소를 풀어~ 어가. 오유월에~ 어가.살찌우세~ 어가.어가~ 어가. 가을 농사~ 어가. 풍년을 면~ 어가. 우리 딸년~ 어가. 시

집보내고~ 어가. 자식 농사~ 어가. 풍년 들면~ 어가. 천세 만세~ 어가. 누러보세~ 어가. 개이빨에~ 어가. 돈을 달아~ 어가. 도성고개~ 어가. 금성남아~ 어가. 강씨봉에~ 어가. 북두칠성~ 어가. 전황남개~ 어가. 소원성취~ 어가. 빌어보자~ 어가. 굽어 굽어~ 어가. 살피소사~ 어가. 풍년들게~ 어가. 돌봐주소~ 어가."

큰댁은 외양간을 메고 이사를 와서 곧 장려소를 매쳤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도 나무를 하러 다녔지만 나의 사촌들도 열심히 나무를 다녔지요. 사촌 형과 나는 방학이면 매일 같이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나무를 다니며 우리들의 공동 관심사는 휘파람을 배우는 것입니다.

"휘파하..."

사촌형은 나보다 휘파람을 잘 못 불니다.

나는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사촌형은 겨우 소리만 낼 정도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촌형 앞에서 어리광 반 자랑 반으로 휘파람을 불어 맵니다.

(계속)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나는 손이 재서 무슨 일이건 빨리 합니다. 나무를 해도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하지요. 풀이더러지고 앉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은 많은 곳으로만 쓰다지면서 나무를 잘리거든요. 그게 내가 나무를 빨리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태네 형제들은 썩어나나무나 산불이 나서 불에 거슬린 장작을 좋아합니다.

"비만관리는 어려서부터"



포천시 보건소는 최근 신정호수 은곡유스타운에서 관내 과체중 어린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캠프를 개최했다.

어린이 건강캠프, 과체중 어린이 200여명 참여

포천시 보건소는 최근 신정호수 은곡유스타운에서 관내 과체중 어린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캠프를 개최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평생 건강의 기초인 좋은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스포츠과학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 및 영양교육 ▶건강 골든벨 ▶수중 레크리에이션 ▶다이어트 맨스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代表 文宰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쥬·썩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